

사회

가족 해체·양극화에 난동·방화·자살...

‘될대로 되라’식 범죄 잇따라 시민 불안

사회안전망 재구축 병리현상 대책 시급

최근 난동, 방화, 자살 등 극단적인 일탈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가족 해체, 공동체 붕괴, 양극화 등에서 비롯되는 이 같은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오전 6시에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길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이 살아가는 장모(39)씨가 주차된 차량 6대의 유리창과 인근 상점 3곳에 쌓아 놓은 물건에 각목을 휘둘러 파손하는 등 일명 ‘물자만 난동’을 부렸다. 장씨는 상점 주인 정모(31)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각목으로 옆구리를 때린 뒤 상점에 있던 가위를 들어 찌르

려고 위협하는 등 30여분간 주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2개월 전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가출해 추석을 혼자 보내게 되자 화병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생활고, 가족 간 마찰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늘고 있다. 2일 새벽 5시 25분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빌라에서는 김모(42)씨가 변개탄을 피운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유서에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친인척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지난

추석연휴에 경찰에 신고된 자살시도가 7건에, 실제로 자살에 이른 경우는 4명에 달했다. 방화사건도 최근 증가 추세다. 광주 서부경찰청은 4일 내연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동거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박모(6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광주시 서구 관천동 아파트에서 내연리만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3일 오후 2시께에는 여고생이 아버지에게 성적 문제로 꾸지람을 듣고 집에 불을 질렀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모(16)양은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불

인 종이 가방을 던져 서랍장과 옷가지 등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물자만 난동’, 방화, 자살 등의 급증은 사회가 갈수록 양극화되는 한편 가족 해체와 공동체 붕괴 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규석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쟁 지향의 사회풍토 속에서 소외감과 자괴감,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이 폭행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낙오자를 챙겨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회복운동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가출 청소년 매년 급증

2007년 274명서 지난해 921명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274명에 불과했던 가출청소년은 지난해 921명으로, 무려 3.4배가 늘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가출청소년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가출청소년은 지난 2007년 274명, 2008년 796명, 2009년 722명, 2010년 1032명, 2011년 921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 2007년 825명에서 지난해 71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7년에는 1만8636명에서 2011년 2만9281명으로 4년간 가출청소년이 57% 증가했다. 2007년에는 남자

청소년이 7995명, 여자청소년이 1만641명, 2011년에는 남자청소년 1만1579명, 여자 청소년 1만7702명으로 여자 청소년 가출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3551명), 부산(1906명), 인천(1337명), 대구(1039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복수응답)는 ‘부모와의 갈등’이 51.3%로 가장 높았고, ‘놀고 싶어서’(29.2%), ‘성적에 대한 부담감’(13.3%)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만745명 가운데 가정 및 학교로 복귀 청소년은 그 절반 수준인 5236명에 불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원침 (8661) 김종두



유골함 훔친 뒤 “돈 보내라”

무안·영암서 잇단 피해... 중국 전화번호 이용 협박

가족납골당에서 유골함을 훔친 뒤 거액을 요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골함 절도범은 경비가 허술한 문중 납골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유골함을 훔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무안경찰과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무안군 일로읍과 영암군 시종면 한 야산에 설치한 가족납골당에서 유골함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골당 입구에 세워진 자물쇠는 절단기로 뜯어져 있었으며 안에 있던 유골함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납골당 내부에는 “특정 지역신문에 연락처를 남기면 전화를하겠다”는 쪽지가 들어있었으며 피해 가족들이 지역신문에 “유골함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자 유골함 절도범들은 발신지가 중국인 전화로 가족들을 협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이 불러준 계좌번호로 수천만원을 입금하면 유골함을 돌려주겠다고 3차례에 걸쳐 협박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송금을 하지 않았다. 이 유골함 도난은 지난달 29일~1일 사이 삼함읍과 일로읍에서 2건이 추가로 발생했

으며 범죄 유형도 비슷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중국 발신번호를 추적하는 한편 인근 도로 CCTV 화면을 검색, 피해 납골당에 진입한 차량을 조회하는 등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사기범들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이 먹혀들지 않자 유골함을 훔쳐 돈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으로 전환한 것 같다”며 “유골함을 도난당하더라도 돈을 송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고깔 만드는 어린이들

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5일까지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이 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호남권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고깔을 만들고 있다. 58개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5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종석 첫 공판 범행 시인

집 안에서 잠자던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3)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 심리로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고씨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15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추석 쇠고 아이 용돈 주려고 강도짓

○추석 명절을 쇠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서행. ○4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5년 전 이혼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지내던 심모(39)씨가 지난 27일 새벽 4시10분께 강진군 강진읍 모택동에서 인근도로에서 귀가하던 A(46)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통장, 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경찰에서 심씨는 “명절을 쇠고, 추석 때 만나기로 한 두 아이에게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빼앗았다”며 선처를 호소.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거액뇌물 받은 영광원전 간부 징역 10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4일 뇌물수수, 입찰방해 등의 혐의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계획처 처장 정모(50)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6000만원, 추징금 2억4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간부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또 뇌물을 준 업체대표 오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4월 밀봉장치 납품계약을 한 뒤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사례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정 팀장은 또 지난해 5월에는 영광 1, 2호기 주전산기 서버교체 물품구매 계약과 서버 프로그램변환 기술용역 계약체결 과정에서 납품업체 전무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받고 또 다

른 업체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 오씨는 한수원 간부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면서 1500만원 상당을 전달하거나 납품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함께 입찰액을 조율해 제출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고리원전 기계팀 원자로 파트 과장 박모(53)씨에게 징역 9년,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4억5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연구비만 축낸 전남대 교수

최근 3년간 과제를 미제출 4건

전남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전남대의 물을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

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전남대의 경우 모두 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구과제에는 연구비로 모두 3000만원이 지급됐다. 연구비는 지급됐지만 연구결과를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희소성**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가부담 전액용자**  
 한번의 선택으로 30년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드리며 검수는 안전전기안전공사에서..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주택  
 ● 누진세 때문에 걱정되는 주택  
 ●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된 주택은 **물량부족, 미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택  
 ● 건축물대장이 없어 시공가능  
 ● 2013년부터는 태양광전문기업에서 **자체사업추진 예정**이며보조대신 **용자사업으로 대체** 예정임  
 ●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다음달로 저축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사용량(kwh)	요 금(원)
100	7,010
200	21,230
300	42,370
400	75,270
500	124,340
600	207,470
700	284,480
800	361,490
1000	515,510

주최: 농협, 후원: 한국수력원자력, 후원: 한국수력원자력, 후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셈 에너지 광주시점  
 광주 전남 동북부지역 062-528-3070 019-655-5678  
 전남 남서부지역 061-727-2371 019-624-237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안기대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